

# 목양칼럼

## 받았으니

“받았으니 주어야 해요.”  
 자기 가족 중에 다른 사람의 장기를 이식받은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받았으니 주어야 해요.”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분의 말은 이렇게 계속되었습니다.  
 “내 가족이 다른 이의 장기를 받아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받았으니 나도 남에게 무엇인가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받았으니 주어야 해요.”  
 큰 은혜를 받고도 거기서 머문 채로 사는 사람이 하도 많은지라  
 당연한 것 같은 그분의 말이 크게 울림을 주었습니다.

뜨거웠던 여름은 가고 거리마다 9월의 바람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이 가을의 문턱에서 누군가의 물음도 우리 마음에 스며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당신은 그분의 생명을 받으셨는데  
 당신은 다른 이에게 무엇을 주시나요?”

오늘 오후에는 동부개척장로회신학교 이 취임식 예배가 있습니다.  
 장영춘 목사님은 32년 동안 학장님으로 신학교를 통해 후학들에게  
 사랑과 가르침을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저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목사님이 섬겼던 자리를 이어 섬기면서  
 제게 꼭 필요한 말과 결단은  
 “받았으니 주어야 해요.” 인 것 같습니다.

###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퀸즈장로교회

The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of Queens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718)886-4040 中文 (347)965-0343 Fax (718)886-5555 http://www.kapcq.org

<b>원로목사</b> 장영춘	<b>담임목사</b> 김성국		
<b>부목사</b> 김도현/QPEM (347)450-7736	김재형 (347)761-7663	오인수 (267)205-1295	
<b>전도목사</b> 이신은 (646)220-8324	다민족선교사 송요한 (917)940-0596		
<b>전도사</b> 고부영/1교구 (917)423-5298	계화자/2교구 (646)641-8944	이양미/3교구 (516)717-8720	함미희/4교구 (917)359-2857
황혜옥/중국교포, 중국어부 (718)825-6969	천위지/중국어부 (347)965-0343		
소유영/행정 (917)318-7030	전성호/청년선교부 (201)370-3455		
<b>교육전도사</b> 이명옥/영어부 (646)327-6438	강지영/유아부 (718)801-2339	이소영/유치부 (347)610-5399	평정은/유년부 (347)804-5366
차평화/중등부 (703)819-8785	최진식/ (646)887-7419	손요한/중국어부 (646)789-1118	
<b>직원</b> 정진규/관리 (646)651-7255	홍현숙/서무 (201)759-0820	Shen de Guia/QPEM (917)254-7455 오재혁 (646)662-9015	
<b>찬양대</b> 1부 / 임마누엘 찬양대	2부 / 호산나 찬양대	3부 / 시온 찬양대	4부 / 할렐루야 찬양대
지휘 / 최진식	지휘 / 최경희	지휘 / 소유영	지휘 / 강혜영
반주 / 임세현	반주 / 김정윤 이승은	반주 / 송소영 나윤주	반주 / 최미희



주후 2018년 9월 2일  
 제 44-35호

## 주일예배 (1,3부)

1부 / 오전 8:30 김재형 목사  
 2부 / 오전 10:30 김성국 목사  
 3부 / 오후 12:15 김성국 목사  
 4부 / 오후 2:00 오인수 목사

* 예배선언 CALL TO WORSHIP		사회자
* 참회와 경배 CONFESSION & ADORATION		다같이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다같이
* 찬송 HYMN	67	다같이
헌신기도 PRAYER		1부 / 황주현 장로 3부 / 장봉석 장로
성경봉독 SCRIPTURE	출애굽기 40:1-38	사회자
찬양 CHOIR	여호와와 위대하다 여호와와 위대하다	임마누엘 찬양대 시온 찬양대
말씀 SERMON	<b>여호와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b>	김성국 목사
헌금 및 찬송 OFFERING & HYMN	191	다같이
광고 ANNOUNCEMENT		사회자
* 찬송 HYMN	204 / 1절	다같이
* 축도 BENEDICTION	치유와 축복기도	설교자
* 표는 일어섬		

예배부름 CALL TO WORSHIP		사회자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다같이
영광송 ANTHEM		찬양대
* 경배와 찬양 PRAISE & WORSHIP		다같이
헌신기도 PRAYER	2부 / 황인섭 장로 4부 / 송동윤 장로	
광고 및 환영 ANNOUNCEMENT		사회자
헌금 및 찬송 OFFERING & HYMN	191	다같이
성경봉독 SCRIPTURE	출애굽기 40:1-38	사회자
찬양 CHOIR	여호와와 위대하다 여호와와 위대하다	호산나 찬양대 할렐루야 찬양대
말씀 SERMON	<b>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b>	김성국 목사
* 찬송 HYMN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다같이
* 축도 BENEDICTION	치유와 축복 기도	설교자

\* 표는 일어셈

**새가족 환영회**  
제 2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생애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 이 취임식 예배**  
오늘 9/2(주) 오후 5:00 본당

**단기 선교 보고 예배**  
9/16(주) 오후 4:00

## 수요 기도 예배

신학교 개강 부흥회

오후 8:00 (9/5/18)	사회: 허윤준 목사
예배선언	사회자
찬송 214	다같이
기도	김정민 학우
성경봉독	김영미 학우
에스겔 36:22-31	
찬양대	퀸즈장로교회 찬양대
말씀	김인환 목사
<b>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b>	
헌금 313	다같이
봉헌기도	인도자
광고	인도자
찬송 490	다같이
축도	학장 김성국 목사

## 교회소식

9월 교육의 달 -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 환영

새로 오신 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하 친교실에 새가족을 위한 지정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새가족 환영회(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에 모두 초대합니다.

### 행사 및 모임

9/2(주)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 이 취임식 예배 9/5(수) 신학교 개강 부흥회 / 지도원 성경 공부  
9/9(주) 월례회 9/11(화) 노회 목사 안수식 예정 9/13(목) 제 8기 제자 훈련 개강

### 알림

- 본 교회에서 진행되는 QBC, 전도폭발훈련, 제자훈련은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돕는 사역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적극 참여하여야 합니다. 아직까지 전도폭발훈련과 제자훈련을 마치지 않은 시무안수집사, 시무권사, 기관장, 임원께서는 이번 학기에 한가지 훈련에는 꼭 등록하시어 훈련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QBC 매주일 오후 2:15~3:15  
70대 이상 선교회 (김재형 목사)-친교실, 60대 선교회 (손요한 전도사)-중등부실, 50대 선교회 (송요한 목사)-유년부실, 30/40대 선교회 (오인수 목사)-고등부실.  
\* 제 8기 제자훈련 1)일시: 9/13(목)부터 14주 2)등록 마감: 9/2(주) 3)문의: 윤원상전도사, 홍승룡장로  
\* 제 57기 전도폭발 훈련 한층 쉬워진 'Just EE' 로 개편된 복음 제시 훈련 1) 개강: 9/18(화) 2) 등록 마감: 오늘 9/9(주) 3) 오리엔테이션: 9/16(주) 4) 문의: 오인수 목사, 최원일 장로
- 동부개혁장로회 신학교 학장 이 취임식 예배가 오늘 오후 5:00에 본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 이임: 장영춘 목사 \* 취임: 김성국 목사
- 2018 단기선교 보고 예배가 9/16(주) 오후 4:00에 있습니다.
- 3040 찬양부흥집회 안내 1) 주제: 하나님어 찾으시는 예배자 2) 강사: 정유성 목사(덴버 북부한인장로교회) 3) 일시: 9/19~21(수~금) 오후 8:00 \* 당일 어린이 부흥집회도 있습니다. \* 연령에 관계 없이 모든 교우들을 환영합니다.
- 퀸즈성인대학 가을학기가 9/18(화) 오전 10:30에 개강합니다. 문의: 이양미전도사
- 열린유아원 가을학기 개강 안내 1) 대상: 만 18개월(8/31기준)~3세까지 2) 등록: \*본교회 교인 자녀: 9월 첫 주까지 각 부서 통해 \*외부: 9/11(화) 오전 10:00 선착순 40명 3) 개강: 9/13(목) 오전 10:00, 유아부실 4) 문의: 이명옥 전도사 646)327-6438
- 한국학교 가을학기 개강 안내 1) 대상: Pre K-12학년 2) 개강: 9/15(토) 오전 9:30 3) 등록 마감: 9/8(토) 오전 10:00-오후 2:00 (한국학교 사무실) \*가을 학기에는 모든 학생(재학생들도 학년이 바뀌기 때문에)이 등록해야 합니다. 4) 문의: 함미희 전도사, 김홍덕 권사 (718-886-4646) \* 한글학교 교사 모집합니다.
- 9/8(토) 토요일 총동원 새벽 기도회 찬양 담당: 장로부부 (다음주: 권사)
- 가족기념 장학기금 허숙영 권사, 이시현 청년, 이하검 어린이

### 새가족

이미녀 (브리스가 1F9) 김광옥 (마르다 2F11) 전지철 (청년대학 3Y1)  
김희자 (루디아 3FM3, 김홍성 - 청장년) 김희정 (청년대학 1Y1)

### 교우소식

결 혼 황국해 군과 김향화(2Y2)양이 8/19(주) 중국에서 결혼식을 하였습니다.  
개 업 오 단(김영덕 2F16) 집사께서 "Being U Lash Art" 를 개업하였습니다.  
주소: 38-19 Union st. #204 Flushing 전화: (646)829-8107  
임 명 오스틴 리 (인턴 전도사)  
정진영 (인턴 전도사)

### 금식기도

월 / 한선일 장현정 민영지 박수연 명셋별 이금숙 주 / 정은숙 민영지 김형섭 박수연 명셋별 배운영  
수 / 박석미 민영지 서은경 박수연 명셋별 박대회 이금숙 목 / 이지운 민영지 채현주 박수연 명셋별 평정은 이금숙 임성옥  
금 / 전소연 민영지 서은경 박수연 명셋별 박대회 이금숙 토 / 홍지혁 민영지 석영지 박수연 명셋별 양한미 권정자

헌금하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예배 및 모임

주일예배	1부	오전 08:30	본당
	2부	오전 10:30	
	3부	오후 12:15	
	4부	오후 02:00	
	QBC	오후 02:15	
	영어	오후 12:00	양순관
	중국어	오전 09:30 오후 02:30	
	러시아어	오전 08: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본당
수요 기도 예배	수요일	오후 8:00	
새가족 환영 모임	화요일	오후 7:30	친교실
전도폭발훈련	화요일	오후 7:30	고등부실
제자, 영성 훈련	목요일	오후 8:00	

영어부	1부 주일 오전 10:30 2부 주일 오후 12:15	영어부실(지하)
유아부		유아부실(2층)
유치부		유치부실(2층)
유년부		유년부실(4층)
초등부		초등부실(3층)
중등부	주일 오전 10:30	중등부실(4층)
	토요모임 오전 9:00	
고등부	주일 오전 10:30	고등부실(3층)
	금요모임 오후 7:00	
청년 대학부	주일 오후 2:00	본당
	금요모임 오후 8:00	유아부실
청년 선교부	주일 오후 2:00	본당
	금요모임 오후 8:00	본당

## 출석

1부 예배	308	러시아어 예배	37	영어부	31	중등부	52
2부 예배	354	청년 선교부	84	유아부	24	고등부	50
3부 예배	310	QBC	173	유치부	31	청년 대학부	31
4부 예배	164	새벽 예배	916	중국어 교육부	20	교회 학교 예배	380
영어 예배	149	수요 기도 예배	207	유년부	74	주일 낮 장년 예배	1729
중국어 예배	323	새가족 환영회	16	초등부	67	주일 낮 총계	2109

## 9월 봉사위원

책임 장로: 채영주 장로

헌신기도	고국환 장로	히경화 장로	이희영 장로	차상남 장로
책임권사	윤지영 권사	김영희 권사	조영숙 권사	청년부
실내 안내	최경선 오영자 홍지혁 강석춘 김동순	이정훈 임승룡 허영미 문인숙 이미셀	오성태 장지숙 정민영 허민정	김누리 권동은 박새롬 정형진 김선의 조한결 신예지 윤국현
헌금 위원	윤영신 심인보 조규옥 윤순자 장현미 차광혁 채송자 강석춘	이지수 허영미 문인숙 임승룡 김미권 전용력 전인자 송명남	심원희 오성태 고종빈 박석미 한원희 허민정 심화숙	김누리 권동은 박새롬 정형진 신예지 조한결 윤국현 박재상 소승우
차량 안내	이영호	정사용	윤지현	최성호

화요일 새가족 환영: 마르다/베드로 주일식사: 마르다(다음주: 다비다)

## 파송, 협력 선교사

파송선교사: 알마티퀸즈장로교회 김관중 선교사 / 캄보디아 이일훈 선교사 박수영 선교사

협력선교사: 미주크리스천신문 / 한인세계선교협의회 / 단비TV / 여운세(캄보디아국제신학교) /  
국제장애인선교회(미국) / 강인중(케냐) / 홍황식(파키스탄) / 김성일(터키) / 박선숙(미국 장애인) / 최득신(프랑스) /  
김명희(미국 할렘) / 최동훈(케냐) / 이동철(온두라스) / 이갈렘(중국) / 김호동(불가리아) / 류동하(한국 경남 통영시 사랑도)

## 금주의 가정예배

2018년 9월 첫째 주

**제 57 문 : “몸이 다시 사는 것” 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답: 죽음 직후에 나의 영혼이 머리되신 그리스도께로 갈 뿐 아니라**

**나의 몸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서**

**나의 영혼과 결합하여 그리스도의 영화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월- 사도신경 / 찬송가 374장 /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 요한복음 11:11-16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것을 가리켜 잠들었다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나사로가 잠들어 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죽었다고 말씀하시며 그에게로 가지 하시니 예수님께서 죽으러 가자고 하시는 줄 알고,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런 제자들과 함께하시며, 이들에게 계속 당신의 하는 일들을 보여 주십니다. 파도 속에서는 믿음을 가지고 놀라지 말라 하시고, 믿음 없는 제자들을 때로는 꾸짖으시기도 하시며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를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그분을 늘 가까이 합시다.

합심 기도 / 주기도문

화- 사도신경 / 찬송가 393장 /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 요한복음 11:17-20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빨리 오시기를 청한 마리아와 마르다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야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야속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 서운하지 않았을까요?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바로 지금 어려운 이 순간에 하나님이 당장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때가 올 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판단과 생각은 내려놓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합심 기도/ 주기도문

수- 사도신경 / 찬송가 488장 /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 11:21-27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는데, 예수님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말씀을 마르다에게 하십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죽

어도 살 것이며,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합심 기도 / 주기도문

목- 사도신경/ 찬송가 342장 /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 요한복음 11:28-32

집에 앉아 있던 마리아가 마르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서 달려갑니다.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는 마르다가 처음 만났을 때 했던 말을 다시 똑같이 반복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이 늦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기 전에 왔으면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늦게 오셨기 때문에 이제 살리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늦게 도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도착하셨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 하십니다.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람이 됩시다.

합심 기도 / 주기도문

금- 사도신경 / 찬송가 135장 /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 요한복음 11:33-35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사로의 죽음을 인하여 우는 마리아와 다른 유대인들을 보시며 예수님은 함께 우십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 4:15-16)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은혜로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우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합심 기도 / 주기도문

토- 사도신경/ 찬송가 379장 /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요한복음 11:36-44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본문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서는 나사로를 살리실 때 단지 나사로만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나사로의 누이들이었던 마리아와 마르다 뿐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을 염두에 두시며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인기와 명성을 얻기 위해서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 일을 봄으로써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십니다. (42절) 함께 우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구주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믿고 따라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합심 기도 / 주기도문